一般論叢

'83 시멘트 決算書

姜 鎭 熙
〈韓國洋灰工業協會企劃課長〉

1. 序

1983 年度는 시멘트業界에 있어 커다란 變化가 있었던 한해였다.

우선 7年間 維持되어온 시멘트 共販會社인 瑞韓實業㈜이 解散되었다.

그동안 시멘트業界는 共販制를 통하여 수차에 걸친 어려운 고비를 잘 넘겼으며 國民經濟에도 크게 寄與했다고 自負하고 있다.

또한 시멘트 共販制의 虛實에 대한 논란과 많은 指摘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幕은 이미 내려졌다. 그렇다고 業界가 지닌 問題點이 解消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經濟運用에 있어 政府가 指向하는 競爭을 通한 市場政策 및 公正去來制度의 定着 등과 軌를 같이 하면서 長期的으로 業界의 問題點을 점차 그리고 스스로 克服하고자 하는 意志의 表現이었던 것이다.

다만 業界의 구조적 문제중의 하나인 輸送에 있어서 그 效率性과 輸送費用의 節減을 기하기 위하여 輸送會社인 能元企業㈜을 設立했다.

우리는 各社 自由販賣로 轉換하면서 過當競爭으로 인한 企業의 不實化를 크게 걱정했었다. 그 時期가 不況의 늪에서 일단 벗어는 났으나 그렇다고 시멘트 景氣가 樂觀的이라고 判斷하기 어려운 때였으며 겨우 찾은 安定이 깨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月)이 거듭되면서 건축경기가 上昇局面으로 접어들고 시멘트 수요도 伸張하게 되어 當初 우려를 크게 줄이는 結果를 가져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던가.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이 싯점에서 지난 일년간의 시멘트 需給에 관하여 간단히 되돌아 보고자 한다.

2. 需 給

1983 年度의 시멘트 需給은 그 均衡을 유지하면서 확실한 成長勢를 보였던 한해였다.

극심한 不況에서 허덕이던 80年代初를 생각할 때 여간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그 당시 業界는 長期化 되어 가는 不況狀態에 매우 당황하고 있었다. 시멘트 業界 再編이라는 불명예를 주었던 70年代初를 回想하면서 시멘트 不運의 10年 週期說을 생각케 했던 것이다.

그러나 82年 下半期부터 시멘트 內需는 다소 回復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이를 根本的인 建築景氣 回復에 의한 現象으로는 보지 않았으며 단지 일시적 現象으로서 短期的인 需要起伏에 불과하다는 見解가 支配的이었다. 왜냐하면 4/4분기에 접어들면서 內需增加勢가 鈍化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맞이 한 1983 년.

年初부터 內需 增加率은 매우 높았으나 이는 完全히 바닥 수준이었던 前年同期實績에 대

한 比較로서 큰 意味를 주지 못했으며 더우기 130 만톤을 上廻하는 工場在庫와 40여만톤의 消費地 滯貨在庫 등을 고려하여 一部會社에서는 操業短縮을 實施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후 매월 一定 水準의 增加率이 持續됨에 따라 需要는 回復局面을 맞이했던 것이며 그 結果 內需에 있어 前年比 23%의 伸張을 보였다.

年初에 今年度 內需成長率을 8% 수준으로 展望하였던 點에 비추어 볼 때 豫想이 完全히 빗나간 셈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增加率은 높은 水準이기는 하나 80年後 負의 成長을 감안할 때 79年 이후 年平均 4.5% 增加에 不過하다는 事實을 蛇足으로 달고 싶다.

1) 生 産

시멘트 業界는 今年에 크링카 및 시멘트 生産에 있어 共히 史上 처음으로 2,000 만톤台를 돌파하는 大記錄을 세웠다. 정확히 말하면 시멘트 생산은 1983年 12月 9日을 기하여 20,061,773 톤을 생산하였으며 크링카는 12月 16日을 기하여 20,020,341 톤을 생산한 것이다. 동시에 소련, 일본, 중공, 미국, 이태리, 스페인, 서독, 프랑스 및 브라질에 이어 처음으로 세계 제10위를 마크함으로써 名實相符한 10大 시멘트 生産國이 되었다.

83年度 크링카 生産은 20,914 천톤으로서 前年對比 9.7%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시멘트는 21,271 천톤으로 前年對比 18.8%의 높은 伸張을 보인바 이는 금년도의 需要增加가 그리 크지 않으리라는 豫想에서 一部社가 年初 크링카 生産活動을 줄인 反面 下半期부터 늘어나는 시멘트 需要에 充當키 위하여 年中生産한 크링카의 시멘트化는 물론 在庫로 갖고 있던 크링카의 대부분을 분쇄, 商品化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稼動率을 보면 年平均 89%를 시현하여 전년의 81%보다 8%포인트의 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過去 10年間의 平均 稼動率 90.3%보다는 1% 정도 떨어지는 실적이나 1/4 分期中 稼動率이 낮았음을 감안할 때 平年 水準에 도달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를 分期別로 보면 1/4 分期中 78.1%, 2/4 分期 85.4%, 3/4 分期 88% 및 4/4 分期92.6%로서 需要가 있는 곳에 供給이 있음을 생각할 때 內需景氣가 2/4 分期부터 뚜렷이 回復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社別로 보면 東洋, 雙龍, 現代 및 高麗의 稼動率이 90%를 上廻하는 實績을 보였으며 韓一, 亞細亞 및 星信이 80%를 조금 넘는 水準인바 東洋과 雙龍은 沿岸社로서 輸出을 고려한 稼動率 提高의 結果이며 現代와 高麗는 小規模 會社라는 共通點 外에 現代는 自家消費가 많고 高麗는 地域的으로 供給의 有利한 點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稼動率이 比較的 낮았던 3個社가 오히려 對前年比에서는 優位를 차지하고 있음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反面 가장 높은 稼動率을 보인 高麗가 前年比에서는 가장 낮은 85% 수준에 머물렀는바 이는 單一 키른을 가진 會社로서 82年에 무리한 稼動으로 今年에 補修를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內 需

(1) 需要部門別實績

83年度 內需는 17,594 천톤으로서 對前年比 23%의 增加를 보였으며 景氣가 매우 좋았던 79年에 비해서는 11.2%의 增加를 나타내어 4年만에야 正常軌道에 들어온 것이다.

82年 下半期부터 점차 회복하기 시작하던 시멘트 景氣가 83年에 와서 완전히 침체의 늪을 빠져나온 것이다.

이를 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는 對前年比 130.3%, 79年 對比 127.2%의 높은 伸張率을 보인 反面 官需는 對前年比 94.9%, 79年 對比 66.6%를 나타내어 해가 갈수록 內需中 民需部門이 차지하는 比重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79年의 官需比重은 26.5%, 82年 20.5% 및 83年 15.9%로서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지극히 自然的인 趨勢로서

過去에는 政府가 主導하는 投資事業이 시멘트 內需에 큰 變數로서 作用하였으나 經濟規模의 擴大와 經濟運用의 民間主導 등으로 官需가 차지하는 比重은 점차 縮小되고 있는 것이다. 그 外에 官給建設工事에 레미콘 使用이 擴大되고 있는 것도 民·官需의 隔差를 벌려 놓는데 크게 作用하고 있으며 그런 趨勢는 앞으로 더욱 加速될 전망이다.

한편 今年度 內需伸張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建築景氣에 힘입은 것으로서 建築許可實績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는 바 83年度(1~10月)의 全國建築許可延面積은 前年比 37%의 增加實績을 기록하였다.

이를 用途別로 보면 住居用이 82年 對比 141.7%, 商業用 157.3% 및 工業用이 152.3%를 나타내어 諸部門에서 共히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住居用이 建築景氣를 主導했던 82年과는 달리 今年度에는 全分野에 걸쳐 景氣가 回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教育·社會用部門만이 前年對比 102.6%를 나타내어 社會間接投資 및 教育投資가 신통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現象은 곧 시멘트 需要에 直結되어 官需가 퇴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景氣가 沈滯 내지 停滯局面에 있을 때에는 建築許可實績의 상당부분이 實際建築實績으로 連結되지 않아 시멘트 需要의 先行指標로서의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것이 通例이나 景氣가 回復局面에 접어 든 83年의 경우 許可實績은 큰 타임래그를 갖지 않고 시멘트 需要增大에 直接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2) 季節別 實績

시멘트는 商品 特性上 季節別 需要의 起伏이 심하다.

그러나 그런 現象은 景氣가 活性化 되는 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特徵도 있다. 83年이 바로 이에 該當하는 한해였다.

即 83年度 月別 內需實績을 前年比로 볼 때 20% 前後의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어 季節에 不拘하고 安定된 成長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1/4分期中의 前年比는 82年 同期實績이 너무 바닥에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단지 9月 實績은 前年同月比 95.3%를 나타내어 負의 成長을 記錄했는 바 이는 秋夕으로 因한 것이다. 即 通例的으로 秋夕이 낀 달의 內需는 크게 鈍化하는 現象이 있다.

82年에는 秋夕이 10月中에 있었고 今年에는 9月에 있었다. 따라서 82年에는 9月의 需要가 많았고 10月이 적은 反面 今年에는 9月의 需要가 적고 10月의 需要가 많았는 바 9月 實績이 저조한 것은 그같은 逆現象이 빚은 結果로 풀이된다.

(3) 벌크 시멘트 出荷比率

內需出荷中 벌크의 比重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벌크 出荷提高는 시멘트 消費 패턴의 變化를 뜻하며 동시에 輸送效率의 極大化 및 流通體制의 現代化를 意味한다.

先進國의 시멘트 業界에서는 벌크化率提高를 위하여 벌크 시설의 확충, 벌크수송수단의 增大 등 投資를 계속하여 벌써 60~70% 水準에 와 있으며 日本의 경우 90%에 이른다. 물론 시멘트 業界의 노력 외에도 建設業界의 장비 개선, 기계화 등도 벌크化率 提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83年度의 벌크 出荷比率은 36.6%로서 상당히 높아졌다.

이는 81년 26.6%에 비하여 10% 포인트, 82년 32.3%에 비하여 4.3%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서 높은 增加趨勢라 하겠으며 더우기 78~80年까지 3年 동안 20% 水準에서 거의 變動이 없었음에 비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런 벌크化率의 增加는 業界가 기울인 流通施設의 擴張과 레미콘 利用者의 增大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레미콘은 建設工期의 短縮, 作業效率의 良好, 品質의 均質性 등으로 점차 그 選好度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레미콘産業의 擴充 등이 벌크 소비를 增加시키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같은 趨勢는 계속될 것으로 본다.

한편 今年의 벌크化率 36.6%는 日本의 64年과 비슷한 수준이며 앞으로 4~5年 後에야 5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83 年 度 시 멘 트 需 給 總 括

(單位 : 천톤)

		79 (A)	82 (B)	83 (C)	對比 (%)	
					C/A ×100	C/B × 100
供給	移越	190	498	549	289.0	110.2
	生産	16,614	17,912	21,271	128.0	118.8
	計	**16,804**	**18,410**	**21,820**	**129.9**	**118.5**
需要	內需	15,825	14,301	17,594	111.2	123.0
	民需	11,636	11,364	14,806	127.2	130.3
	官需	4,189	2,937	2,788	66.6	94.9
	輸出	507 (1,268)	3,561 (2,037)	3,641 (1,473)	718.2 (116.2)	102.2 (72.3)
	計	**16,332**	**17,862**	**21,235**	**130.0**	**118.9**
在庫		472	548	571	121.0	104.2

註 1. ( )는 크링카 輸出, 外書
2. 83年 12月分 推定, 삽입

3. 輸 出

83年度의 輸出은 크링카를 포함하여 出荷基準 5,114 천톤으로서 82年 5,598 천톤의 91.4 %에 불과하여 鈍化現象을 보였다.

83年의 輸出市場 環境은 好材는 없고 惡材만이 있었다.

그 要因들을 살펴보면 ① 輸出單價에 있어서 톤當 平均 4달러 정도 하락했으며 ② 터키, 스페인 등의 西유럽국가 및 유고, 불가리아, 폴랜드 등의 東유럽국가들로부터 市場을 빼앗겼다.

특히 이들은 정상적인 國際時價보다 훨씬 낮은 價格으로 우리의 主力市場인 中東市場을 크게 잠식했고 最近에는 파키스탄, 벵글라데쉬, 인도 등의 東南亞市場에까지 進出하여 점점 우리의 輸出을 어렵게 하고 있다. ③ 아랍 에미레이트 같은 輸入國들은 자체공급능력 증가로 自給度 向上을 꾀했을 뿐 아니라 輸出餘力까지 갖추어 가고 있으며 말레이지아도 같은 狀況이다. ④ 우리의 크링카 輸出 大市場인 싱가폴에는 스페인에서 벌크를 進出시켰으며 ⑤ 日本의 國內景氣沈滯로 內需不振을 커버하기 위하여 輸出에 注力하고 있고 ⑥ 홍콩은 경기감퇴로 輸入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는 點 등을 들 수 있겠다.

한편 輸出實績은 品目別 構成比面에서 보면 크링카의 경우 28.3 %로 前年度의 36.4 %보다 크게 低調한 反面 포장 시멘트는 41 %에서 44 %로, 벌크 시멘트는 22.6 %에서 27.7 %로 前年보다 增加하였는 바 크링카 輸出은 82年에 이어 계속 감소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輸出實績을 金額面에서 살펴보면 83年은 2억弗로서 前年度 2억6천만弗에 비해 무려 25 %나 감소하였다.

輸出物量의 감소가 9 % 미만인데 비하여 금액이 큰 폭으로 減少된 것은 輸出單價의 下落과 종래 C&F 계약이 주로 FOB 계약으로 바뀐데 기인하는 것이다.

83年度 시멘트需給實績을 추정해 보면 上記表와 같다. ♣